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2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3월 28일 (음력 2월 21일) 금요일

첨단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민주 '견제론' 무소속 '인물론' 격돌

총선 D-12

광주·전남 선거전 초반부터 달아올라

상가·주택가 발로 뛰며 표심잡기 분주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다음달 8일까지 13일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이 시작됐다.

특히 거물급 무소속 후보들의 등장으로 '통합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깨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후보들과 민주노동당 등 여타 정당 후보들도 최대한의 득표를 위해 민심잡기에 나서면서 선거전은 날이 갈수록 불을 뿜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5면〉

27일 통합민주당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한나라당 견제론과 강한 야당 건설, 호남 정치의 미래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은 통합민주당 공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바닥을 다졌다.

또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개혁의 지원지인 광주·전남에서 진보 세력의 싹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공식 선거전 첫날부터 격돌했다.

무안·신안의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이날 신안군 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통합민주당이 동교동의 뿌리까지 뽑으려 한다"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 세를 과시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 황호순 후보는 이날 아침부터 무안 읍내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정통 민주세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이제는 세습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김홍업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목포의 박지원 무소속 후보는 이날 선거 유세에서 "반드시 당선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DJ의 향수를 자극한 반면 통합민주당의 정영식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의 일부 기관장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력한 무소속 후보들이 없는 통합민주당 일부 후보들은 이날 클린 선거 선포식을 갖는가 하면 간단한 거리 유세에 나서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선거 운동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상당수의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전국 최고 득표율 및 광주·전남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선거캠프 합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후보들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광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모 후보는 "현실적으로 당선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2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53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제53회 전국대회 호남예술제

접 수 : 음악·무용·국악 : 4월 4일(금)~11일(금)
미술·작문·논술 : 5월 1일(목)~9일(금)

• 주 최 : 광주일보사
• 협 찬 : SAMSUNG 삼성전자

수능 국사 과목 근현대사 출제

2009 시행계획

오는 11월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 과목의 근·현대사 부분이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난이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수리 가 영역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등급제에서 표준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병기된다.

〈관련기사 9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2005년)에 따라 조선 개항의 시발점인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부분이 포함된다.

시험 영역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돼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 비율을 높여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성균 원장 대행은 "지난해 수능을 비롯해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난이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특히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13일 실시되고 채점은 11월14일~12월9일, 성적은 통지는 12월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복수정답 인정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정답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대 사안(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개성 경협사무소 南인원 철수

靑 "당당하게 원칙 갖고 대처"

북한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27일 철수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 남북 당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 측이 '북핵 문제가 타결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해옴에 따라, 27일 새벽 1시께 11명 전원이 철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